



[경일춘추]물 아래 남은 시간

경남일보 | 승인 2026.07.02 16:26

김강섭 한국농어촌공사 차장·건축사



김강섭 한국농어촌공사 차장·건축사

나의 고향은 물고기가 사는 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길과 집이 있고 사람이 살았던 시간이 있다. 비가 내리면 수심은 더 깊어진다. 물속을 그려본다. 기억은 고요히 잠긴 시간 위로 물고기처럼 살아 움직인다. 나는 지리산 줄기의 작은 마을인 하동군 청암면 동촌(東村)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다. 그곳은 오염되지 않은 땅이며, 사람들은 전통의 생활 풍습을 이어가고 있었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는 흙먼지가 날렸다. 그래도 인심과 정

이 넘치는 풍요로운 곳이었다. 유년은 해맑았고 즐겁기만 한 시절이었지만, 슬픔도 기쁨도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가난과 결여는 서로를 필요로 했다. 쓸모없는 존재는 한 명도 없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코흘리개 아이도 제 몫의 일이 있었다. 대지에 뿌리박은 공동체 속에서 각자는 한 인간으로서 강인한 존재였다. 부모님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앞가림하는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사랑을 배웠다.

고향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언제나 그대로 있을 것이라 믿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모든 것을 덮어 버렸다. 어릴 적 살았던 집과 마을이 물속에 잠겼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동댐이 만들어지며 마을과 도로, 주거지, 산야가 사라졌다.

가끔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한다. 발끝에 닿는 차가운 물,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오르는 기억들. 그리고 문득, 내가 살던 집의 대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본다. 문을 열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마당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다. 그러나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은 물결처럼 흩어진다.

고향은 사진 속에 있다. 낡은 사진을 보면 도로와 집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온다. 흐릿한 사진이지만 선명한 감정을 불러낸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심상으로 채워지고, 사라진 시간은 마음속에서 또렷해진다. 어쩌면 고향이란 실제의 장소보다 기억 속에서 오래오래 남는 것인지 모른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임 안내 문자가 도착해 있다. 7월이 되면 고향 분들은 모임을 한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식사하고 노래도 부른다. 이 모임은 사라진 마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마을, 이름을 부르면 떠오르는 얼굴들, 웃음소리만으로도 되살아나는 시간은 고향의 재현이다.

고향은 늘 거기에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길은 고향으로 이어진다. 고향은 반드시 땅 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 속에도 사람 속에도 시간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 물고기의 집을 생각한다. 그곳에는 추억과 향기가 살아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다.



경남일보